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김윤정, 강현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Yun-Jeong Kim(twoyun21@hanmail.net), Hyun-Jung Kang(hj-cs@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청소년, 성인, 노인의 우울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청소년 399명, 성인 473명, 노인 370명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살위험과 우울감 수준은 노인이 가장 높고, 청소년, 성인 순이었으나, 가족결속력은 성인이 가장 높고, 노인, 청소년 순이었다. 둘째, 우울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과 성인의 가족결속도는 우울감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감소를 위해서 가족결속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노인의 경우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을 노년기 자살의 특성에서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가족결속도 | 자살위험 | 우울감 | 완충효과 |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among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To achieve the research aim, surveys were conducted in 10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399 adolescents, 473 adults, and 370 elderly from May to August 2010. Major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i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the elderly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adolescents and adults in descending order, in family cohesion, adults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the elderly and adolescents. Second, the analysis of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showed that it was significant only for adolescents and adults, which means that for those two groups family cohesion alleviates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al risk, demonstrating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family cohesion to reduce suicides among the two groups of people. But, for the elderly for whom family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age group,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was not proved. The interpretation of this phenomenon is given in the part of the paper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e of the old age group is discussed.

■ keyword : | Family Cohesion | Suicidal Risk | Depression | Buffering Effect |

접수일자 : 2014년 01월 03일

수정일자 : 2014년 0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2월 10일

교신저자 : 강현정, e-mail : hj-cs@hanmail.net

I. 서론

국내외 모두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1] 가운데 한국의 자살 증가율은 OECD 회원국가의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최근 자살률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4.7명이었으나, 2012년 36.5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OECD 회원 국가들의 경우 평균 자살 사망률이 12.9명[2]인 것에 비해 거의 3배수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살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우울감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3-8]. 그러나 우울감이 높은 모든 사람이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9][10]. 즉 자살위험은 개인적인 변수나 개인적인 자원에 의해 감소되는데 그간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로는 자존감, 사회적지지, 가족결속도(가족관계)가 거론되어 왔다.

먼저 Kim[8]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감이 높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경우 자살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을 밝혀서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완충효과를 밝혔다. 또한 Galit 등[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배지연[11]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임수영[1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을 높이는 우울 및 상실과 같은 자살위험요인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가장 일차적이면서 가장 근접한 사회적 지원체계라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긍정적 완충효과를 줄 수 있는 대표적 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가족과의 관계나 가족결속도가 자살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는 상당수 발표되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 경우 자살생각이 낮아지며[7][13-17], 가족지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확률이 낮아진다[18]. 또한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낮았다[19-22].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위험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박병금[13]은 성인의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의 기능이 와해되어 있고 결속도가 낮은 경우 자살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자살사건을 내용 분석 한 김효창과 손영미[23]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촉발사건으로 대인관계 갈등 중 부부싸움이 3건, 고부간의 다툼 및 형과의 다툼이 각각 1건으로 5건 모두 가족관계의 문제였다. 또한 관계단절로 인한 자살사고 역시 모두 가족간의 문제였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노인의 경우도 청소년이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는 자살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가족통합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으며[3], 가족관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노인학대나 가족갈등이 노인의 자살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이었다[23-29]. 자살시도를 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한 임미영과 김윤정[28]의 연구에서도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 중 하나는 '가족갈등과 걱정이 고통으로 다가옴' 이었고, 박지영[30] 역시 자살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버림',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가족구성원간의 지지체계 부족', '왜곡된 가족 부양인식' 등에 의해 자살상황에 놓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족결속도나 가족관계가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그간 자살위험을 완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어 온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지와는 달리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단지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31], Rudd[32]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간접적인 매개적인 역할을 하였고, Rubenstein 등[37]은 우울감의 수준이 같더라도 가족결속도가 높은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이 3배에서 3.5배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 가능성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로서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검증이 되었으나, 인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간의 결속도의 완충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가족결속도나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 가족결속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의 완충요인을 파악한 그간의 선행 연구는 청소년이나 노인, 혹은 성인 등 특정집단만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를 통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즉, 전국 10개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인, 노인 각 500명씩 15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을 제외하고, 청소년 399명, 성인 473명, 노인 37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30~50대 성인은 각 지역의 여성회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및 일반 지역 사회거주 성인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2.1 자살위험

본 연구에서는 자살 위험 측정하기 위해 Harlow 등[33]에 의해 개발된 Suicide Ideation Scale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생각을 연구한 김형수[3]가 번안해 활용한 바 있는 척도이며 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경험, 인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 등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low 등[33]의 측정도구와 같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1이다.

2.2 우울감

우울감은 SCL-90를 Choi[34]가 번역한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CL-90은 4점형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형 Likert 척도로 변경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0이다.

2.3 가족결속도

Olson, Portner, Lavee[35]에 의해 개발된 FACES 시리즈를 김수현[3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9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M(SD)
성별	여자	666(53.8)	-
	남자	573(46.2)	
연령	청소년(20대미만)	399(32.1)	42.03 (23.19)
	성인(20-65세미만)	473(38.1)	
	노인(65세이상)	370(29.8)	
종교	불교	235(19.1)	-
	기독교	390(31.7)	
	천주교	114(9.3)	
	무교	461(37.4)	
	기타	31(2.5)	
거주지	대도시	489(39.5)	-
	중소도시	528(42.6)	
	농촌	221(17.9)	
소득수준	매우 부족	85(5.3)	2.80 (.76)
	부족한 편	297(24.0)	
	보통	714(57.7)	
	넉넉	143(11.6)	
	매우 넉넉	18(1.5)	

3.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가 53.9%로 남자 46.2%보다 많았고, 연령은 평균 42.03세로 청소년 32.1%성인 38.1%, 노인 29.8%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종교는 무교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중소도시 거주가 42.6%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소득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80으로 보통수준 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1. 자살위험, 우울감, 가족결속도의 연령집단 간 차이

연령집단 간 자살위험, 우울감, 가족결속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표 2]. 먼저 자살위험은 세 연령집단 모두 1점대로서 자살위험이 낮았으며, 우울감은 모두 2점대로서 이 역시 중앙값 보다 낮기 때문에 우울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족결속도는 모두 3점대 이상으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자살위험, 우울감, 가족결속도의 연령집단 간 차이

구분		N	M(SD)	F	Duncan
자살위험	청소년	399	1.799(.965)	36.987***	b
	성인	469	1.496(.624)		a
	노인	370	1.943(.713)		c
우울감	청소년	399	2.503(.852)	50.854***	b
	성인	471	2.192(.636)		a
	노인	370	2.707(.757)		c
가족결속력	청소년	399	3.355(.791)	32.760***	a
	성인	469	3.732(.595)		c
	노인	370	3.481(.721)		b

***p<.001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설명을 하면 자살위험과 우울감은 노인이 가장 높고, 청소년, 성인 순으로 성인의 자살위험과 우울감이 가장 낮았다. 이와는 달리 가족결속도는 성인이 가장 높고, 노인, 청소년 순으로 청

소년의 가족결속도가 가장 낮았다.

2. 연령집단별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

연령집단별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감, 가족결속력, 우울감×가족결속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살위험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 가족결속도, 우울감×가족결속력은 청소년 자살위험의 42.6%를 설명하였고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가 유의하였다[표 3].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이 낮은 경우에 비해 자살위험이 높다. 그러나 우울감이 높더라도 가족결속도가 높은 경우 자살위험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즉 우울감이 높으면서 가족결속도가 낮은 경우 자살위험이 4.367점이나, 우울감이 높지만 가족결속도도 높은 경우 자살위험이 2.743점이었다.

표 3.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 완충효과 <n=399>

변인	청소년		
	B	β	t
(Constant)	-.08		-.187
우울감(A)	.971	.858	6.573***
가족결속력(B)	.064	.053	.533
A×B	-.094	-.288	-2.184*
F	99.459***		
R ²	.426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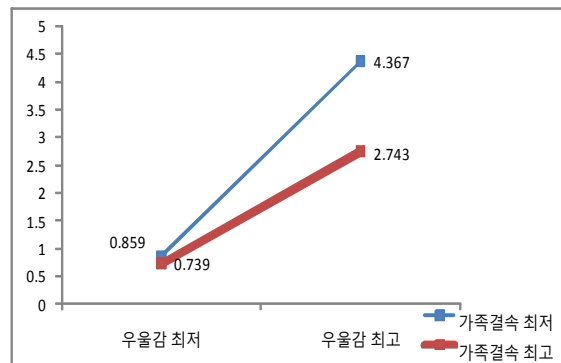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 완충효과

다음으로 성인의 경우 우울감, 가족결속도, 우울감×가족결속력은 성인의 자살위험의 40.3%를 설명하였고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가 유의하였다[표 4].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이 낮은 경우에 비해 자살위험이 높다. 그러나 우울감이 높더라도 가족결속도가 높은 경우 자살위험이 다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울감이 높으면서 가족결속도가 낮은 경우 자살위험이 3.270점이나 우울감이 높지만 가족결속도도 높은 경우 자살위험이 2.147점이었다.

표 4. 성인의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 완충효과 <n=473>

변인	성인		
	B	β	t
(Constant)	-.613		-1.232
우울감(A)	1.103	1.123	5.577***
가족결속력(B)	.226	.215	1.758
A×B	-.143	-.521	-2.713**
F	105.906***		
R ²	.403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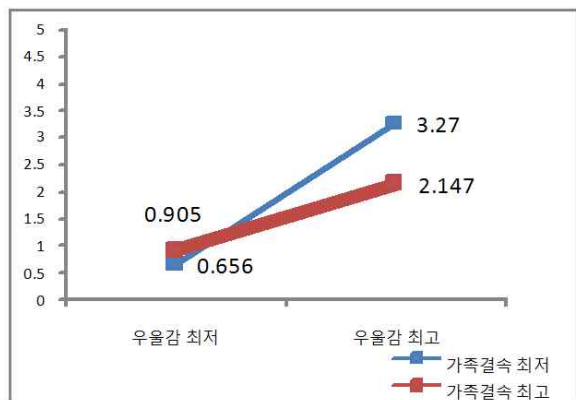


그림 2. 성인의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 완충효과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우 우울감, 가족결속도, 우울감×가족결속력은 노인의 자살위험의 35.2%를 설명하였으나,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즉 가족결속도 수준에 따라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

표 5. 노인의 우울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 완충효과 <n=370>

변인	노인		
	B	β	t
(Constant)	1.299		2.532*
우울감(A)	.547	.580	3.257**
가족결속력(B)	-.158	-.159	-1.162
A×B	-.031	-.122	-.674
F	67.717***		
R ²	.352		

*p<.05, **p<.01, ***p<.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에서 8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399명, 성인 473명, 노인 37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완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우울감이나 자살위험은 중간수준이나 가족결속도가 낮아 가족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으며, 성인은 우울감과 자살위험은 낮고 가족결속도가 가장 높아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경우는 우울감과 자살위험이 가장 높지만 가족결속도는 중간수준으로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결속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하겠으나 노인의 경우 자살위험에서 가족결속도의 긍정적인 역할이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가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라는 자살위험의 절대적 영향요인의 위험성을 가족결속도로 완충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가족결속도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 2000년 이후 청소년 인구가 감

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0~14세 청소년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38]. 이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의 붕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 사회, 경제, 정신건강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청소년은 인지적·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상태이며[39],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40]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아동기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성장과 함께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체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증가하여 이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가족 결속도를 약화시킨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가족결속도가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 낮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가 발견된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인 의의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가족결속도가 자살위험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가족결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족과의 결속도가 낮지만 가족 결속도에 의해 자살위험이 가장 많이 낮아지는 시기로서 부모자녀관계, 가족과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친밀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의 경우에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우울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가 검증되었다. 성인은 가정의 가장이나 주부로서, 이들의 자살 후 남겨진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자녀들은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성장하게 된다[22]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결속도의 자살위험 완충효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그간 자살연구에서 성인기의 자살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가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인의 자살위험이 가족결속도로 완충된다는 점은 가족단위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이 성인의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우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양한 관계의 변화와 상실의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 노인의 경우,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는 노인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기제로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손상에 대한 지지체계이다. 그럼에도 핵가족화, 대화의 부족 및 가족 기능의 감소는 노인의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어 역설적이나, 자살위험에 있어 가족결속도는 다른 어느 집단에 비해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특히 서구와는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일상적인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41],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아온 노인에게 가족의 의미는 절대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42]. 여기에 우울감과 자살위험 수준이 성인이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가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그간 가족에서 제공하는 친밀감이나 결속도는 자살위험의 보호요인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졌으나, 가족관계가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거나 과도한 통제와 높은 상호의존성은 오히려 자살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18]을 간과한 것이다. 즉, 구성원이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집단은 서로간의 통제 의무 및 긴장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43]는 점을 고려하면, 노년기의 삶에서 중요한 가족결속도의 자살위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해석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 결속도나 가족간의 관계의 정도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완충효과를 검증한다면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노년기 자살의 특징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전체 연령대에서 자살시도와 자살의 비율은 8:1에서 20:1까지 보고되고 있지만 노인은 2:1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44-46]. 이는 노인이 일정기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살시도가 자살완성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46]. 즉 노년기 자살은 청소년기의 자살과는 달리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가족결속도와 같은 주변의 대인관계로 완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로 Kim[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완충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긴 시간의 결정인 자살위험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존감과 같은 자신의 내적 심리적 변수로는 완충이 되지만, 가족결속도와 같은 사회적 변수로는 완충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노년기 자살위험을 완충시킬 수 있는 심리적 변수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고 그를 통해 가족결속도 향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성별과 연령, 거주지에 따른 할당표집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확률적 표집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측정도구 선정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측정도구 선택의 이유를 명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1] K. L. Neville and N. Roan, "Nurses' Attitudes toward Suicide in Hospitalized, Medical-Surgical Patients," In NURSING RESEARCH, Vol.62, No.2, pp.E6-E7, 2013.
- [2]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 [3]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159-172, 2002.
- [4] 신상진, 조영태, "사회적 자본과 자살충동, 건강교육", 건강증진학회지, 제24권, 제3호, pp.35-49, 2007
- [5] 오진경, 조영태, 김창엽, "2000년 우리나라 성인 자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18권, pp.191-210, 2005.
- [6] 김현순, 김병석,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201-219, 2008.
- [7] 김순규,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pp.66-93, 2008.
- [8] Y. J. Kim, "The buffer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Korean elderly," JDCTA: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Content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Vol.7, No.12, pp.355-361, 2013.
- [9] A. Galit, M. A. Doru, and C. O. James,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elf-esteem: Accounting for Suicidality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 life - Threatening Behavior, AAS, Vol.29, No.4, pp.309-318, 1999.
- [10] E. Shneidman, *Definition of Suicide* New York:Wiley, 1985.
- [11] 배지연,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pp.446-447, 2005.
- [12] 임수영,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13] 박병금,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과학회지, 제16권, 제3호, pp.505-522, 2007.
- [14] 오현아, 박영래, 최미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35-43, 2008.
- [15] 최인재,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 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

-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제17권, 제9호, pp.105-130, 2009
- [16] H. Ayyash-Abodo,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39, No.4, pp.459-475, 2002.
- [17] A. L. Sroufe, S. Duggal, N. Weinfeld, and E. Carlson, *Relationship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ress, 2000.
- [18] 이민아, 김석호, 박재현, 심은정, "사회적 관계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pp.61-84, 2010.
- [19] 김민경,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가족탄력성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1호, pp.61-83, 2012.
- [20] 박재연,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1호, pp.345-375, 2010.
- [21] 서하진, 김정옥,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3호, pp.141-178, 2009.
- [22] 서신자, 정민숙,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62-274, 2013.
- [23] 김효창, 손영미, "노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제2호, pp.1-19, 2006.
- [24] 고민석, 서인균, "노인의 건강상태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대한보건연구, 제37권, 제1호, pp.1-14, 2011.
- [25] 이운선,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6] Kaslow and J. Nadine, "Ratings of family functioning of suicidal and nonsuicidal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4, No.4, p.585, 2000.
- [27] K. Karvonen, P. Räsänen, H. Hakko, M. Timonen, V. B. Meyer Rochow, T. Särkioja, and H. J. Koponen, "Suicide after hospitalization in the elderly: a population based study of suicides in Northern Finland between 1988 - 2003,"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23, No.2, pp.135-141.
- [28] 임미영, 김윤정, "노인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전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41권, 제1호, pp.61-71, 2011.
- [29] 최신애,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요인: 중증만성질환자 돌봄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65-279, 2010.
- [30] 박지영, "노인자살 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7권, pp.295-330, 2007.
- [31]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0권, 제4호, pp.375-394, 2005.
- [32] M. D. Rudd,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reatening Behavior*," Vol.20, pp.16-30, 1990.
- [33] D. Harwood and R. Jacoby, *Suicide behavior among the elderly*, John Wiley & Sons. Ltd, 2001.
- [34] H. K. Choi, *The process of caregiving stress among Korean caregivers for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nel University, New York, USA, 1992.
- [35] Olson, H. David, Portner, Joyce, Layee, and Yoav,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 II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1985.
- [36] 김수현, *가족사정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37] R. E. Rubenstein, T. Heeren, D. Housman, C. Rubin and G. Stechler, "Suicidal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9, pp.59-71, 1999.
- [38] 통계청, *2012년 사망통계 결과*, 2013.
- [39] 송한나,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40] D. A. Brent, J. A. Perper, G. Moritz, M. Beugher, C. Roth, L. Balach, and J. C. Schweers, "Stressful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23, pp.179-187, 1993.
- [41] H. R Markus and S. Kitayam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Vol.98, pp.224-253, 1991.
- [42] S. M. Stewart, E. Felice, C. Classen, B. D. Kennard, P. W. Lee, and G. J. Emslie,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3, No2, pp.296-306, 2006.
- [43] S. Ferlander, "The Importance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for Health," *Acta Sociologica*, Vol.50, No.2, pp.115-129, 2007.
- [44] J. L. McIntosh, J. F. Santos, R.W. Hubbard, and J. C. Overholser, *Elder Suicide Research Theory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45] D. De Leo and G. Meneghel, *The elderly and suicide, in D. Wasserment(Ed), Suicide, unnecessary death, (1995-2007)*, London: Marin Ducitz, 2001.
- [46] K. Szanto, G. H. Priberson, and F. C. Reynold, "Suicide in the elderly," *Clinical Neuroscience Research*, Vol.1, pp.366-376, 2001.

저자 소개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부양, 성공적 노화,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노인의 정신건강 등

강 현 정(Hyun-Jung Kang)

정회원



- 2005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박사)
- 2011년 ~ 현재 : 한서대학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 노인의 사회적 배제, 노인의 사회참여, 노후준비 등